



◇방금 피어나 은은한 향을 내뿜는듯 하는 내소사 대웅보전의 꽃창살문. 우리나라 대웅전문 가운데 으뜸으로 꼽힌다(왼쪽부터 빗꽃화살문, 빗면모란꽃문, 빗모란꽃문, 소솔연꽃문).

“목조각꽃 부처님 찬탄하네”

“내소사의 백미는 대웅보전의 꽃창살문입니다. 연꽃과 국화 모란, 채색이 자취를 오하며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전해줍니다.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는 자국한 신심이 그대로 배어납니다.”

안내를 맡은 김정희교수(원광대 고고미술사)의 설명이다. 일주문에서 사천왕문에 이르는 5백여m의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이미 속진을 벗어난 여객들의 느낌도 다를 바 없다.

두번째 불교문화 테마여행 참가자 130여명이 내소사에 도착한 시간은 정오를 조금 넘은 때였다. 곧바로 대웅보전에 정좌했다. 총무 진현스님이 사찰의 연혁과 대웅보전 살신당 무של전 보화루 등 현재의 당우 배치를 소개했다.

본시가 주최하고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두번째 목적지는 내소사(來蘇寺). 3월달이지만 봄을 시샘하는 바람의 한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대웅보전 꽃창살문의 호트러짐없는 배열과 정교한 조각술씨가 대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테마여행은 성공했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3월 내소사

“한국의 色·線·面”-목조각의 조형미와 단청



◀대웅전 후불벽에 그려진 국내 최대의 백의관음좌상. 선재종자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모습.

▼김정희교수의 현장강의를 듣고 노트필기를 하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원래 이름 소래사 19세기 바뀐듯 대웅전 연속 꽃창살문 '회귀' 고려동종 삼존불 조각 빼어나

5출목 공포 단청과 어울려 '美의 극치' '미완의 법당' 전설에 순례자 걸음 멈추고...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년)에 해구스남에 의해 소래사(蘇來寺)라는 이름으로 창건됐다. 이후 사세가 기울어 폐허이다시피 했던 사찰을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생(蘇生)을 얻도록 하겠다'고 발원하며 현재의 모습으로 가꾼 이는 창민(甞民)스님이었다. 발원의 지국한만큼이나 이곳엔 법당내 공포의 목침이 하나 빠진 사연과 마무리하지 못한 단청에 깃든 아름다운 전설이 있다.



◇법당내부 공포(栴檀)를 5출목(出木)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가운데 문 왼쪽의 흰 부분에 목침 하나가 빠진 채 미완으로 남아있다.

중창하며 있었던 일이다.

목수는 대웅전 지을 나무를 찾아 기동강과 중방강을 쫓고 작은 기동과 서개를 끊었다. 다음에는 목침만한 크기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이어 목수는 돌을 놓고 대패를 들어 다듬기 시작했다. 일은 여기서 벌어졌다. 목수가 목수를 끌려 주려고 목침 하나를 감춰버렸다. 목침깎기 3년이 되던 날, 목수는 대패를 내려놓고 일어나더니 노적만쯤 쌓인 목침을 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연장을 쥔 목수는 창민선사를 찾아갔다.

“스님, 소인은 아직 법당을 지을 인연이 먼 듯 하옵니다. 목침 하나가 부족합니다. 아직 저의 경계가 미흡한가 봅니다.”

“가지 말고 법당을 짓게. 목침이 그대의 경계를 말하는 것은 아닐세.”

스님은 화공을 불러 단청을 부탁하고 대중들에게도 일제 법당 집근을 공했다. 그런데 또 목수가 이 문틈으로 법당안을 들여다본 게 화근이었다. 오색영롱한 작은 새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

리고 있는 게 아닌가. 관음조였던 것이다. 목수가 이 슬그머니 법당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어디선가 산물릴같은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새는 날아가 버렸다.

“이 법당은 미완의 법당입니다.”

실제로 대웅전 지붕 밑 왼쪽을 가문지른 기동연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그 옆엔 웅크림하는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어 묘한 대조를 보인다. 여느 법당에서는 볼 수 없는 5출목으로 정압해 극락 정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법당이 미완성이거나, 그 미완의 법당에는 나무로 깎은 연꽃 봉우리가 이 환희의 합창을 하고 있었다. 아이타여래불을 찬탄하며 곧 피어날 준비를 하는듯 했다.

쇠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나무를 깎아 끼워맞추는 결구기법으로 조성된 대웅보전(보물 제291호)에는 부처님 좌대 뒷편에 좌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백의관음보살 벽화가 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종자가 스물여덟번째 선지식을 찾아 보타락가산의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장면이다. 웃고름이 매우 사실적이며, 관세음보살의 환율이



눈부시다.

음풍과 여의주를 희롱하는 용모양의 종고리 등이 고려시대 범종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닌 동종(보물 제277호), 종선에 돌을새긴 삼존상의 모습이 오래도록 눈가에 머문다.

전나무 숲길을 내려오며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는다. 삼존상이 소리로 화현한 것이리라.

“이곳에 오는 사람 모두에게 소생을 얻도록 하겠다”는 창민선사의 발원을 여러분이 이어갈 때 비로소 이 법당은 완성되는 것이겠지요.”

부인=정성운 기자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

려한 오색단청이 아니라 나무 결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더욱 소탈해보인다. 대웅전 후불벽 뒷벽에는 국내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는 백의관음좌상(白衣觀音坐像)이 그려져 있다.

대웅전 앞에는 고려시대의 3층석탑이 있어 말없이 고려조 사찰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으며, 범종각 안에는 고려시대의 범종(1222년, 보물 277호)이 봉안되어 있다. 높이 1.1m, 직경 67cm의 이 종은 유곽(乳廓)과 유곽 사이에 정교하고 사실적인 솜씨로 삼존상이 조각되어 있고 화려한 모란담초문(牡丹草文)의 상·하대, 상대 위의 입장화문대(立狀花文帶) 등 아름다운 장식이 돋보인다. 이외에도 경내에는 1640년에 창건된 회(回)자형의 주심포(柱心包)건물인 살신당(說身堂)을 비롯하여 삼상각(三上閣), 부도전(浮屠殿) 등이 있는데, 형식상 종과 삼층석탑을 제외하고는 조선시대 유물이 대부분 이어서 대부분 창림선사 중건 이후의 것인 듯하다. 이밖에 내소사에는 보물 278호로 지정된 법화경사경(法華經寫經)이 전하고 있다(국립전주박물관 보관).

btn 불교텔레비전 32

(주) 위 동 마 린 투 어

신심으로 가는 깨침의 길

중국불교성지순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중국불교성지순례

불교TV와 함께 다녀오십시오

불교텔레비전과 중국 최대 현지법인 여행사인 위동마린투어가 국내 최초의 크루즈급 호화여행으로 모시는 선상여행에는 편안한 여유로움과, 최상의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3월27일(일) 첫 출발
입장: 3월27일 - 3월25일

중국불교 핵심 성지순례 9일 ▶PDS-301 ₩1,180,000

중국·베트남·대만·미얀마·티베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일본·중국·대만·베트남·대만·미얀마·티베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중국남부 불교성지순례 9일 ▶PDS-302 ₩1,500,000

중국·베트남·대만·미얀마·티베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일본·중국·대만·베트남·대만·미얀마·티베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불교TV만이 드리는 모방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

- 획기적인 가격
- 여유있는 순례코스
- 국내최초 크루즈급 여행선의 최고 서비스
- 중국 현지 최대 여행사의 넉넉하고 편리한 일정
- 선상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 성지순례 비디오테일 및 성지안내서 무료제공

● 배하문의 불교텔레비전 사업부 ☎ (02)3270-3471~3
위 동 마 린 투 어 ☎ (02)711-9111